

중국선교의 새로운 공간 탐색 by 박수민 선교사

I. 서론

A. 문제제기

최근 몇 년간 중국이라는 지리적 공간, 즉 중국 영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선교는 선교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첫 번째 변화는 중국정부의 종교에 대한 정책과 태도의 변화가 초래한 중국선교의 전반적 위기의 출현이다. 특히 이 위기는 한국파송 선교사에게 더 강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는 중국이 한국 교회의 최대 선교지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¹⁾ 2012년 중국에 시진핑(習近平, Xi Jin Ping)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국선교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했다. 이러한 위기는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 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중국정부는 각종 법적 조치를 강화해 중국내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을 대규모로 추방하거나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²⁾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 선교사들은 추방의 주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의 2019년에 열렸던 22회 총회에 따르면 GMS 중국 파송선교사 380명중 300명이 추방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GMS 중국 파송선교사의 79%에 해당하는 숫자다.³⁾ 한국 교회가 파송한 중국선교사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전체 한국 선교사중 1/5 또는 그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한국 선교사가 활동하는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다.⁴⁾ 중국정부의 종교에 관한 새

1) 김광성, “중국의 종교정책이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에 미친 영향: 기독교 중국화에 대한 선교 실천적 대응,” 「선교와 신학」 제48집, 2019, 46.

2) 함태경, 『알았던 선교 몰랐던 중국』, 서울: 두란노서원, 2015, 91-100/260.

3) <http://www.hapdo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95>, 접속일: 2021년 7월 14일.

4) 우심화,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에 대한 진단과 제언,” 「기독교 사상」 통권 제638호, 2012, 53.

로운 조치는 특별히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에 타격이 크다. 중국선교의 위기는 중국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뿐 아니라, 중국 교회에도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 중국정부는 시진핑 체제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전국에 있는 비공인 교회를 폐쇄하기 시작했다. 베이징(北京, BeiJing)의 시안교회(錫安教會, XiAn), 광저우(廣州, GuangZhou)의 롱구이교회(榮歸教會, RongGui), 청두(成都, ChengDu)의 이른비언약교회(秋雨至約教會, QiuYuZhiYue) 등, 대표적인 도시 가정교회들이 정부의 압력으로 문을 닫았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기독교를 압박하기 위해, 대대적인 십자가 철거, 교회내 감시 카메라 설치, 교회 예배당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의 게양과 공산당 찬양, 교회 건물에 대한 폭파와 압수, 기독교인에 가해지는 개종과 해고의 압박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⁵⁾ 중국정부의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에 대한 핍박은 앞으로도 좀 더 긴 기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중국선교의 위기는 당분간 지속되면서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선교의 위기는 중국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과 새로운 선교 방향에 관한 연구를 촉진한다. 중국선교 관련자들은 위기를 겪으며 중국 선교를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돌아보게 되고, 현재의 위기를 해소하며 중국선교를 지속해서 발전시킬 방법을 찾아 노력하게 된다. 본 논문의 중국선교에 관한 공간중심의 연구는 이러한 노력 중의 하나다.

선교는 항상 실재하는 공간을 전제로 수행됐다. 지리적 공간을 떠나서 선교를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교는 영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지리적 영토에서 또 다른 지리적 영토로의 선교사 이주(주로 북반구 국가에서 남반구 국가로), 복음의 이동을 전제로 진행됐다. 선교에 관련된 선교지, 선교 현장, 선교 훈련, 타문화, 이방인, 토착문화, 토착화 등과 같은 많은 용어는 지리적 영토, 혹은 영토에서 영토로의 이주와 관련이 깊다. 데이비드 보쉬(David J. Bosch)는 『변화하는 선교』의 서론에서 선교

5) 王怡, 『背负十字架』, 느헤미야 역, 『십자가를 짊어지고(중국가정교회 역사 1807-2018)』, 서울: 서로북스, 2021, 285-294.

의 다양한 의미를 여덟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중 다섯 가지는 지리적 영토개념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개념이고, 나머지 세 개도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⁶⁾ 그런데 이러한 선교와 공간의 밀접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선교에서 다루는 공간에 대한 이해는 지리적 혹은 물리적 실체의 전통적인 영토개념에 묶여 있는 경향을 보였다.

사실 이는 선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초국가적인 이주의 물결이 세계화와 더불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전까지 공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국가주의에 기초한 영토개념에 근거했다. 이 공간은 국가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영토공간으로 다양성을 부정한다. 이러한 영토개념은 초국가적인 이주로 말미암아 변화를 보이게 된다. 이주의 물결 그리고 새로운 운송과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발달로 국가주의에 뿌리내렸던 영토공간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글로벌하고 초국가적인 다양한 공간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중은 차츰 이런 다양한 공간들을 인식하게 되었다.⁷⁾

이주에 따른 일반적인 공간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공간인식은 일반적 공간인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선교의 공간인식은 여전히 국가주의 시대의 지리적인 영토개념처럼 획일적이다. 선교는 아직 전통적인 지리학의 영토개념을 넘어서 새롭게 공간을 인식하고 다양한 선교의 공간을 탐색하고 그 공간에서 선교를 활성화하는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6) 보쉬가 언급한 선교의 다양한 의미는 ① 선교사를 지정한 지역으로 파송, ② 선교사들이 수행해야 할 활동, ③ 선교사가 활동하는 지리적 지역, ④ 선교사들을 파견하는 기관, ⑤ 비기독교 세계 혹은 선교 현장, ⑥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선교본부, ⑦ 때로 상주하는 목회자가 없이 여전히 기존 교회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 회중, ⑧ 유명무실한 기독교인들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깊게 하거나 전파하는 일련의 특별 사역이다. 연구자는 이중 ①, ③, ⑤, ⑥, ⑦은 그 내용과 용어를 살펴볼 때, 예를 들면 지역으로의 파송(①), 지리적 지역(③), 비기독교 세계 혹은 선교 현장(⑤), 선교 현장(⑥), 지역 회중(⑦) 등과 같이 지리적 영토개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나머지 ②, ④, ⑧등도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김만태 역, 『변화하는 선교: 선교신학의 패러다임 전환』, 서울: CLC, 2017, 26.

7) Markus Schroer, *Räume, Orte, Grenzen-Auf dem Weg zu einer Soziologie des Raums*, 정인모, 배정희 역, 『공간, 장소, 경계-공간의 사회학 이론 정립을 위하여』, 서울: 에코리브르, 2010, 221-253.

이러한 현상은 중국선교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난다. 중국선교의 위기를 인식할 때도 여전히 지리적 영토개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국선교의 위기는 중국이라는 지리적 영토 안에서의 위기이며, 아직은 중국선교 전체의 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⁸⁾ 중국선교 안에 자리 잡은 중국이라는 지리적 영토개념이 너무 강해 중국선교의 위기를 균형 있게 분석하고 새로운 중국선교의 공간을 찾는 일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런 중국선교의 전통적인 지리적 영토개념의 한계를 규명하고, 선교의 새로운 공간을 탐색하는 다양한 중국선교를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위기의 중국선교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중국선교가 맞이하고 있는 두 번째 변화는 이주시대의 도래다. 이주의 시대가 위기를 맞은 중국선교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이유는 공간중심의 중국선교 인식과 관련이 있다. 영토개념을 넘어서 공간을 중심으로 중국선교를 인식할 때, 중국선교는 이주의 시대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디아스포라 공간에서 새로운 선교공간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들어와 전례 없는 대규모 이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⁹⁾ UN의 2020년 최신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3%에 가까운 2억 8,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국제이주를 한 디아스포라다.¹⁰⁾ 그리고 이 숫자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¹¹⁾ 만일 이들이 모두 한곳으로 이주해 하나의 나라를 형성한다면 이 디아스포라로 이루어진 나라는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가 될 것이다. UN은 이런 세계적인 현상에 주목해서 2000년 12월

8) 본 논문 III의 B에서 중국선교의 위기 분석과 새로운 공간 문제를 자세히 다룬다. 간략하면 본 논문에서는 지금의 중국선교 위기는 전체 중국선교 위기의 전단계이며, 새로운 중국선교 공간탐색을 통해서, 중국선교 전체의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견지한다.

9) Enoch Wan, *Diaspora Missiology: Theory, Methodology, and Practice*, Portland: Western Seminary, <https://amz.run/55tH>, 421/14476.

10) <https://migrationdataportal.org/themes/international-migrant-stocks>, 접속일: 2021년 4월 23일.

11) Hein de Hass, Stephen Castles, Mark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20, 4.

18일을 세계 이주민의 날(International Migrants Day)로 선언하기도 했다.¹²⁾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그야말로 이동하는(on the move) 시대에 살고 있다. 이주 현상은 현대에 들어와 더욱 보편화되고 일상화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단기간 혹은 장기간에 걸쳐 이주와 연결된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주는 선교를 둘러싼 제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선교 대상자들이 전 세계로 이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웃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주로 말미암아 지리적 거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선교의 공간이 우리 삶의 주변에 생겨나고 있다. 이제 10/40창 지역의 선교 대상자인 미전도 종족이 바로 내 집 문 앞에 와 있는 시대가 되었다.¹³⁾ 또한 이주는 이주한 디아스포라들이 제한된 모국의 환경을 벗어나 복음을 더 쉽게 접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게 하고 있다.¹⁴⁾ 이제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배우자, 난민의 등장은 유럽이나 북미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도 빠르게 이민자를 수용하는 국가가 되고 있다.¹⁵⁾ 이주로 말미암아 타문화 선교지가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촉발된 이주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from everywhere to everywhere)의 선교 시대를 열고 있다.¹⁶⁾

이주는 과거에는 명확했던 선교사 파송국가와 수용국가 사이에 존재했던 지리적 경계도 허물고 있다. 지금은 전 세계 모든 곳이 선교사 파송국가 이면서 동시에 선교사 수용국가가 되고 있다. 선교는 이제는 서구에서 그 외의 지역으로만 이동하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모든 곳의 교회가 자기 소재지에서 선교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¹⁷⁾

12) Kevin Kenny, *Diaspora: A Very Short Introduction*, 최명석 역, 『디아스포라 이즈 is』, 서울: 엘피, 2016, 161.

13) Wan, *Diaspora Missiology*, 10552/14476.

14) Michael Pocock, Gailyn Van Rheenen, Douglas McConnell, *Changing Face of World Missions*, 박영환 외 2인 역, 『변화하는 내일의 세계선교』, 서울: 바울, 2008, 29.

15) Stephen Castles, Mark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한국이민학회 역, 『이주의 시대』, 서울: 일조각, 2018, 5, 6.

16) Sadiri Joy Tira, Juliet Lee Uytanlet, *A Hybrid World: Diaspora, Hybridity, and Missio Dei*, <https://amz.run/55tK>, Littleton: William Carey Publishing, , 2020, 272.

이주가 초래한 모든 곳에서 선교가 가능한 시대의 도래, 선교사 파송 국가와 수용국가 사이에 존재했던 경계의 소멸과 같은 선교환경의 변화는 선교에 있어서 위기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주가 새로운 선교의 기회인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주를 통해서 선교에 유리한 새로운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의 시대에 중국선교를 둘러싼 선교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존재하는 지금,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규모는 홍콩, 마카오를 포함하면 약 7,700만에 이른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디아스포라 그룹이다.¹⁸⁾ 디아스포라 중국인 그룹은 이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룹이다. 중국선교는 세계선교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세계선교 동원 가능성이 큰 잠재적 선교 동원국가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선교가 지금 위기에 봉착했다. 중국정부는 종교에 대한 전반적인 압박의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으며, 이는 중국선교에 거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COVID-19의 대유행으로 전 세계에 걸쳐서 피해가 급증하면서, 최근 급격하게 중국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도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¹⁹⁾ 그야말로 중국선교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시기를 통과하는 중이다. 중국선교가 재개될 수 있을지? 다시 부흥의 날들이 올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중국선교의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²⁰⁾ 그러나 아직 뚜렷한 해결 방안이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선교정책 결핍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동기와 배경을 제공하는 신학, 특히 선교신학이 변화에 신속하면서도

17) Bosch, 『변화하는 선교』, 589-591.

18) 임채완 외 3인, 『화교 디아스포라: 이주 루트와 기억의 역사』, 경기: 북코리아, 2013, 8-49.

19)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964804.html>, 접속일: 2021년 9월 2일.

20) 다양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2018년 7월에 있었던 동북아 선교회(PCA) 총회에서는 속지주의(屬地主意)에 고착된 선교정책과 신학을 속지주의(屬地主意)+속인주의(屬人主意)의 확장된 정책으로의 전환과 중화선교회 혹은 중어권 선교회의 설립을 결의하기도 했다; 김영동, “입국 거부와 추방 선교사의 역사적 통찰과 전망: 중국 공산화 이후와 최근의 경우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제47권, 2019, 32; 이외에도 선교사 재배치에 관련된 전략들이 나오고 있다.

적절한 대응을 제공할 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또한 이런 변화하는 선교에 공감하며 지지할 수 있는 교계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에 이주민으로 존재하는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존재는 중국선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준다. 이제 중국이라는 지리적 영토개념으로 한정되는 중국선교로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수 없으며 중국선교의 생존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변화된 세상에 상응하는 새로운 중국선교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선교를 고정된 지리적 영토의 개념으로 제한하지 않는 새로운 중국선교의 개념을 제안한다. 중국선교는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의 중국선교라는 세계 속에(in a universe of China mission), 다수의 중국선교들(a pluriverse of China missions)이 존재하는 선교라는 주장이다.²¹⁾ 중국선교를 하나의 획일적인 개념으로 축소하지 않으면서, 다채로운 색으로 만들어지는 모자이크 작품처럼, 다양한 색깔을 지닌 중국선교들이 모여서 만들어 내는 포용적인 중국선교로 정의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작금의 중국선교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 중국선교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국선교를 지리적 개념이 아닌 공간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한다. 그동안 중국선교는 중국선교의 방법, 전략 등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중국선교의 공간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인식도 전통적인 지리적 영토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선교에 대한 공간적 접근은 새로운 차원의 선교 이해를 가져오며 중국선교의 위기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공간의 개념으로 중국선교에 접근할 때, 중국선교는 지리적 개념에 갇히지 않으면서 이주의 시대가 만들어 내는 공간 안에서 새로운 중국선교의 모색이 가능해진다. 중국선교의

21) 보쉬는 자신의 책 『변화하는 선교』의 서론에서, 선교학의 다양성을 설명하면서 George Soares Prabhu의 선교학에 대한 정의를 인용한다. 연구자는 이 내용을 재인용하여 중국선교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응용해서 사용했다. 원문에는 “선교라는 하나의 세계(in a universe of mission) 속에 다수의 선교학(a pluriverse of missiology)을 두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연구자는 이 개념을 중국선교 개념 정의에 응용해서 중국선교를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맞게 새롭게 정의했다; Bosch, 『변화하는 선교: 선교신학의 패러다임 전환』, 36.

새로운 공간은 디아스포라 중국인,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회, 그리고 이들의 네트워크 속에 존재한다. 이 공간은 디아스포라의 사회적 공간이면서 경계지대와 주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다분히 선교적인 공간이다. 중국선교의 새로운 공간 발견과 그 공간에서의 선교활동은 중국선교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공간에서 2004년 5월에서 2021년 9월 현재까지 이루어진 디아스포라 선교를 공간의 관점에서 연구하여, 지리적 개념을 넘어서는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중국선교의 가능성과 유효성을 살핀다. 연구자는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의 실례를 통해 중국선교의 공간적 접근을 제시하여 급격한 선교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선교의 발전과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B. 연구목적

본 논문의 논지는 중국선교의 위기 극복은 새로운 선교공간의 탐색과 공간개념의 선교 인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선교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중국선교를 지리적 영토 중심이 아닌, 공간 중심의 중국선교를 인식해야 한다. 그럴 때 중국선교는 지리적 개념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이주가 시대가 만들어내는 여러 공간 안에서 중국선교의 새로운 공간 탐색이 가능해진다.

『에큐메니컬 선교학』 22)에서는 여러 각도에서 이주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데, 그중 겐마 트루드 크루즈(Gemma Tulud Cruz)는 이주 부분을 종합적이면서도 자세히 연구해 이주에 관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 그녀는 사람들의 이동이 기독교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이제 선교에 있어서 지리적인 장벽이 소멸하면서 땅을 근거로 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창조적인 시

22) Kenneth R. Ross, Jooseop Keum, Kyriaki Avtzi and Roderick R. Hewitt, *Ecumenical Missiology-Changing Landscapes and New Conceptions of Mission*, 한국에큐메니컬학회 역, 『에큐메니컬 선교학-변화하는 지형과 새로운 선교개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8.